

<2017년 7월 30일 주일말씀>

<만물 계시>와 <징조>와 <표적>을 배워라

본 문 로마서 1장 20절

할렐루야!

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자의 평강과

성령님의 뜨거운 사랑과

말씀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.

<말씀 시작>

◆ 하나님도 성령님도 때에 따라 <계시>를 해 주십니다.

- 기본은 <말씀>을 들을 때 ‘깨닫도록’ 계시하십니다.
- 어느 때는 <깊이 기도>할 때 ‘깨닫도록’ 계시하시고,
- 어느 때는 <꿈>을 통해 계시하시고,
- 어느 때는 <만물>을 보여 주시며 비유를 들어 계시해 주십니다.

◆ 급할 때는 <만물>을 보여 주면서
순간 ‘비유’를 들어 계시해 주십니다.

그런데 <만물 계시>에 대해 모르고 신경을 안 쓰면,
평소에 아무 생각 없이 보듯이 그냥 봅니다.

◆ 2014년에 <하늘 언어 수련회>를 할 때부터

수년 동안 <만물 계시>에 대해 배우라고 말씀하면서
자세히 가르쳐 주었습니다.

그래도 안 배우고 신경을 안 쓰니,
하나님과 성령께서 <만물>을 통해 “이와 같이 이리하다.” 계시하며
자기에게 ‘답’을 주셔도 모릅니다.

- ◆ <만물 계시>를 안 배우고 신경을 안 쓰니,
<만물>을 보여 줘도 제대로 풀지 못합니다.

<계시 받는 것>도 배워야 받고,
<만물 계시>도 배워야 받습니다.

- ◆ 하나님은 <만물>을 ‘언어와 글씨’로 사용한다고 가르쳐 줬습니다.

가령 <태양>을 보여 주면
<태양>이라고 말 안 해도 ‘태양이라는 글씨’ 이고,
<사람>을 보여 주면
<사람>이라고 말 안 해도 ‘사람이라는 글씨’ 입니다.

태양, 나무, 꽃, 각종 동물 등
<그 만물에 해당되는 이름>이 있습니다.

하나님은 <각종 만물>을 보여 주시면서
<그 만물의 특징>대로
사람이든, 건물이든, 어떤 문제든 연결시켜
목적한 것을 깨닫게 해 주십니다.

- ◆ 다시 말하면,
하나님은 <만물>로 ‘목적한 것을 비유’ 해서 보여 주십니다.

그리고 <목적한 것>과 연결시키게 하면서,
“좋다.”, 혹은 “나쁘다.” 하며 <목적한 것>을 깨우쳐 주십니다.

◆ 다시 말하면

하나님은 <자신이 창조한 만물>을 ‘글씨’로 쓰며 계시하십니다.

<만물>을 보여 주면 ‘그 형상과 모양’을 직접 보니,
더 구체적으로 실감이 납니다.

◆ <만물 계시>를 세밀하게 알고 풀려면,
<만물의 특성>과 <모양과 형상>을 기본으로 알아야 됩니다.

<그 만물의 특성>과 <모양과 형상>과 연결되면서
<계시>가 오기 때문입니다.

그리고 기도하여 신령하고 영적이어야
<삼위의 신령한 계시>를 제대로 깨달을 수 있습니다.

◆ 이것을 ‘기본’으로 알고, 계속 ‘차원’ 높여 배우고 써야 됩니다.

그러면 <비유로 보여 준 만물>을 통해
하나님과 성령께서 무엇을 깨닫게 하시는지,
어떤 목적을 두고 행하시는지 그 목적을 알고 행하게 됩니다.

◆ <만물 계시>를 배웠어도 계속 차원 높여 전문으로 배워야 됩니다.

<외국어>도 차원 높여 배울수록 그 나라 사람과 더 잘 통하듯이,
하늘 언어인 <만물 계시>도 차원 높여 전문으로 배울수록
하나님과 성령님과 더욱 잘 통하고 항상 대화하게 됩니다.

<잠시 쉬었다가>

- ◆ <멀리 있는 사람>은 직접 못 보니,
<비유>로 보여 주면 깨닫고 알게 됩니다.

하나님과 성령님은 <영의 세계>나 <영계에 있는 영들>도
<비유>로 ‘땅에 사는 자들’에게 보여 주시며
그 이치를 깨닫게 해 주십니다.

- ◆ <말씀을 통해 알고 깨닫는 것>이 중요하듯,
<만물을 통해 비유로 보여 주시는 것을 깨닫는 것>도 중요하니
<만물>을 볼 때 세밀하게 잘 봐야 됩니다.

<만물>을 통해 그때 하나님과 성령께서

목적을 두고 연결하여 깨우쳐 주시는 내용이 중하니,
집중해서 잘 보고 깨달아야 됩니다.

- ◆ 전능하신 삼위일체가 <만물의 언어, 만물의 글씨>로 말해 주시니,
<만물 계시>를 귀히 여기고 배우고 행해야 됩니다.

- ◆ 만물 계시를 안 배워서
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시는 것을 못 받고 사는 사람들이
만물 계시를 안 배운 사람만큼 많습니다.

- ◆ <만물 계시를 배우고 관심을 갖고 쓰는 자>는
매일 삼위와 통하고 대화하게 됩니다.

- ◆ 하나님과 성령님과 항상 통하며 대화해야 더 많이 도우십니다.
천사와도 자주 통하고 대화해야 됩니다.

옆에 <자기를 돕는 천사>가 같이 사는데도
1년이 가도 대화를 안 하는 자들이 많습니다.

그러니 천사가 돕고 경호하기가 힘듭니다.

평소에 <천사>를 늘 부르고 대화해야 돕기가 쉬운데
천사가 옆에 있어도 전혀 안 통하니,
<천사가 알아서 도울 것>만 돕습니다.

- ◆ ‘하나님과 성령님은 ‘신’ 이니까 말 안 해도 다 아신다.
천사도 ‘영’ 이니까 말 안 해도 다 안다.’ 하고 말 안 하면
그 면에서 실패합니다.

하나님도 성령님도 주도 천사도 ‘육’ 으로 보면서,
마치 사람과 늘 통하며 자주 대화하듯 해야 됩니다.

그래야 ‘도울 것’ 을 돕기가 쉽습니다.

그래야 <꿈>에도 <생시>에도 만물을 보여 주며 깨우쳐 주고,
느끼게 하면서 깨우쳐 주고, 대화하면서 가르쳐 줍니다.

- ◆ 사람들끼리도 ‘대화’ 를 안 하면,
아무리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도 돕기가 어렵습니다.

의사가 환자를 진단할 때 첨단 장비를 사용하지만,
그보다 먼저 “어디가 불편합니까?” 하고 물어봅니다.

그것을 알면, 진단하는 데 더 도움이 됩니다.

알아야 도울 수 있습니다.

알아야 서로 힘을 모아서 할 수 있습니다.

고로 하나님과도, 성령님과도, 주와도, 천사와도,
옆의 형제들과도, 같이 일하는 사람들과도 ‘늘 대화’입니다.

- ◆ 하나님과 성령과 주와 대화하지 않고 혼자서 하면,
평생 ‘새 머리의 삶’입니다.

<독수리>와 <일반 새>는 다릅니다.

<독수리>가 ‘독수리의 생각’을 쥐서 그대로 하면,
일반 새가 평생 생각해도 못 하는 것을 생각하고 행합니다.

<독수리>가 누구입니까? ‘하나님과 성령님과 주’입니다.

그 생각을 받아서 해야
자기가 평생 생각해도 못 하는 것을 생각하고 행하여 얻게 됩니다.

- ◆ 사람이 <생각하는 것>에 따라서 운명이 좌우되고,
차원도 달라지고, 행함도 달라지고, 천국의 위치도 달라집니다.
그만큼 <생각하는 것>이 중요하고, <생각하는 차원>이 중요합니다.

<잠시 쉬었다가>

- ◎ 잠시 <생각과 차원> 이야기가 나왔으니,
이에 해당되는 것을 몇 분만 말씀하겠습니다.

- ◆ <빛> 가운데 나와서 봐야
<자기가 과거에 못 했던 것>을 알게 됩니다.

빛 가운데 나와서 ‘차원’을 높이고 <할 일>을 해야
그제야 얻으니 ‘과거에 못 했을 때 손해 간 것들’을 알게 됩니다.

<차원>대로 보고 얻고,

<얻은 자>만 그 세계의 보람을 누리고 삽니다.

- ◆ 지금 이 시대는 사람들이 얻고서 이야기를 안 합니다.

<그 차원이 안 되는 사람>에게 ‘얻은 것’ 을 이야기하면

이야기해도 잘 못 알아듣고, 오해하고,

오히려 시험에 들고 말썽이 생기고 손해가 가니,

주와만 통하고 삼위께 감사 영광 돌리고 사랑하며 삽니다.

<얻은 자>는 그 차원에서 수고하고 애쓰고 몸부림쳐 얻었는데,

자기는 ‘그 단계, 그 차원’ 에서 얻지 못하고는 시기합니다.

자기는 그 사람이 ‘그 차원에서 행한 것’ 을 못 봤어도

그 사람이 그 차원에서 행했기에 하나님도 주도 준 것입니다.

- ◆ 항상 일을 하는 자들은 ‘자기’ 만 생각하고 하면 안 됩니다.

<자기>만 생각하고 하다가

삼위 앞에도, 주께도, 사람들에게도 실수하는 일이 많으니

깨닫고 온전하게 해야 됩니다.

<자기>가 ‘이 일’ 을 하면,

<옆의 사람>에게는 지장이 가서 일을 못 하게 되기도 합니다.

고로 ‘앞뒤 좌우’ 를 다 생각하면서 ‘질서 있게’ 해야 됩니다.

<잠시 쉬었다가>

◎ 다시 <만물 계시>에 대해서 말씀하겠습니다.

- ◆ 성경을 보면,
하나님께서 <만물과 사람을 통해 말씀하시고 계시해 주신 것>이
수천 군데나 나옵니다.

<만물을 통해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신 것>이

모두 ‘만물을 통한 말씀’ 이고 ‘계시’ 입니다.

<표적>도 ‘만물’ 을 통해 보여 주십니다.

<만물>을 보여 주면서 ‘비유’ 를 들어 계시해 주시면,
<만물의 특성과 모양과 형상>을 직접 눈으로 보면서
연결되어 깨닫게 되니 쉽고, 잘 깨달아지고, 실감이 납니다.

- ◆ 그러나 무조건 ‘큰 만물’ 을 보여 주셔야
<목적>도 ‘큰 것’ 은 아닙니다.

중요한 말씀이니, 잘 듣기 바랍니다.

- ◆ <만물 계시>는 먼저 ‘만물’ 을 보여 주고,
그것을 통해 그것이 ‘무슨 내용’ 인지 깨닫게 하십니다.

그래서 <보여 주는 만물>도 중요하지만,

<그 만물을 통해 깨닫는 내용>이 중요합니다.

<작은 만물>을 보여 주셔도 <목적>은 작지 않습니다.

그것을 비유로 들기에 합당하니, 하나님은 작아도 그것을 보여 주면서
“큰사람이다. 큰 건물이다.” 깨닫게 하여 <표적>을 행하십니다.

- ◆ <작은 곤충>을 비유로 보여 주셔도
<실제 목적>은 ‘큰사람, 큰 건물’ 일 때도 있습니다.

이는 ‘계시를 받는 자’ 만 압니다.

- ◆ 지지난 주에 <표적>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,
선생이 지난날 <하나님이 섭리사에 보여 주신 표적>을 생각하며
감탄하고 감사하며 대화했더니,
하나님이 그 즉시 ‘또 한 가지의 표적’ 을 보여 주셨다고 했지요?

이때 하나님은 ‘작은 곤충 한 마리’ 를 보여 주면서
<그 내용>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<표적>을 행하셨다고 했지요?
말이 나왔으니, 잠깐 그 이야기를 해 주겠습니다.

- ◆ 어느 날 새벽에 하나님은
<표적> 이야기를 하시면서 <표적에 대한 잠언>을 주셨습니다.

왜 <표적>에 대해 말씀하시느냐고 물으니,
하나님은 “과거 섭리사에 왜 표적이 일어났는지 근본을 깨달아라.
그러면 지금도 <표적>을 행할 것이다.
깨닫고 행하여라.” 하고 말씀하셨습니다.

- ◆ <과거 섭리사에 표적을 일으키신 목적>은
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셨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!!
또 하나님이 보낸 자를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!!

- ◆ <표적>은 ‘표적’ 을 낳습니다.

<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며 행하신 표적을 증거할 때>
하나님은 그와 같이 지금도 <표적>을 일으키십니다!

- ◆ 그리고 이날,
하나님은 또 <만물>을 통해 ‘표적’을 보여 주셨습니다.

오전에 운동하고 돌아오는데,
<풀밭에서 뛰놀던 검은 여치 한 마리>가
내 등 뒤에 붙어서 온 표적이었습니다.

지금 그 여치는 ‘내 방’에서 크고 있습니다.

- ◆ <작은 곤충 한 마리>가
내 등 뒤에 붙어서 내 방으로 오게 하셨지만,
<표적의 내용>은 ‘엄청’ 납니다.

왜 ‘검은 여치’인가 할 것입니다.

검다고 해서 ‘사탄 상징’이 아니고,
그만큼 ‘무게가 있다.’ 함입니다.

<만물>은 작아도 <표적의 내용>은 ‘엄청’ 납니다.
훗날 ‘이 표적의 결과물’을 모두 보게 될 것입니다.

- ◆ 한번은 이 여치를 쳐다보다가 1초 동안 순간 다른 데를 봤는데,
그 순간에 여치가 없어졌습니다.

1시간을 찾아도 없었습니다.

이때 하나님은 ‘여치’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.

“눈도 마음도 생각도 떼지 말아라.

나 여호와에게도, 성령에게도, 작사 작곡에도
눈도 마음도 생각도 떼지 말아라.

악평자에게도 눈도 마음도 생각도 폐지 말아라.
생명 관리도 그러하고, 모든 일도 그러하니라.

나 여호와와는 지구 세상 75억 명의 모든 생명들에게
눈도 마음도 생각도 안 폐고
불꽃같은 눈으로 그들을 쳐다보며 살핀다.” 하셨습니다.

◆ 이와 같이

<보여 준 만물>은 하찮은 곤충이나 과일, 작은 존재물이라도
<실제 목적>은 ‘큰 사람’ 이나 ‘엄청난 건물’ 입니다.

<보여 준 만물>이 작아도 그것과
<실제 목적의 특징>이 같기 때문입니다.

<잠시 쉬었다가>

◆ <만물 계시>는

<만물>을 통해 ‘비유’ 를 들어 보여 주시며
<실체>와 연결시켜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.

◆ 사람도 이해를 시키며 말을 할 때

<만물>을 ‘비유’ 로 들어서 말하지요?

다리가 짧고 긴 사람은 ‘학’ 을 비유로 들어서
“<학>처럼 다리가 짧고 길다.” 하면 이해가 잘됩니다.

허리가 가는 사람은 ‘개미’ 를 비유로 들어서
“허리가 ‘개미허리’ 다.” 하면 이해가 잘되지요?

이와 같이 하나님도 쉽게 이해시키려고

<그에 합당한 만물>을 ‘비유’로 들어 말씀하십니다.

<작은 만물>이라도 <그것의 특징>이 ‘실체와 연관’이 되면,
그것을 비유로 보여 주시며 ‘실체 목적’과 연결하십니다.

그리고 ‘표적’을 보이십니다.

◎ 마지막으로

<만물 계시에 대해 꼭 알아야 할 것들>을 몇 가지 말씀하고,
오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.

◆ <만물 계시>는 ‘하늘 언어’입니다.

그래서 하나님도 성령님도 <만물>을 보여 주시며 깨닫게 하십니다.

◆ 첫 번째, <만물>을 보여 주되

<그 사람이 평소에 잘 보던 만물, 평소에 잘 아는 만물>을
보여 주시며 깨닫게 하십니다.

<평소에 자기가 보던 것>이고 <잘 알던 것>이니,
쉽게 연결하여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.

◆ 그러나 <평소에 보던 만물>이라도

그것을 <하나님이 만물 계시로 쓰시는 것>이라고 알고 봐야,
하나님이 합당하면 ‘그 만물’을 보이시며
스스로 쉽게 깨닫게 하십니다.

고로 두 번째, <만물>을 볼 때 하나님과 성령님께 물어봐야 됩니다.

그 만물을 통해 하나님과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면,
물어볼 때 구체적으로 깨닫게 해 주십니다.

- ◆ <만물 계시가 아닌 것>은 ‘보통’ 으로 보이고,
<만물 계시가 맞는 것>은
하나님과 성령께서 “이와 같이 이리하다. 이와 같이 하여라.”
하고 감동을 주며 깨닫게 해 주십니다.

- ◆ 세 번째,
<만물 계시>는 ‘그 만물이 보일 때 순간’ 깨닫게 하십니다.
순간 ‘그 만물’ 을 보여 주며 느끼고 깨닫게 하십니다.

- ◆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
 정말 신비하게 ‘실체와 딱 맞는 만물’ 을 보이시며
<보여 준 만물>과 <실체>와 연결시켜 깨우쳐 주십니다.

 어떤 곤충이든, 동물이든, 존재물이든
<그 만물의 특성>이 ‘실체’ 와 같기 때문입니다.

- ◆ <깨닫게 하고자 하는 대상>이
 - 썩었으면 ‘썩은 것들’ 로 보이시고,
 - <좋은 것>은 ‘좋은 것’ 으로 보이시고,
 - <우아한 것>은 ‘우아한 것’ 으로 보이시고,
 - <무게 있는 것>은 ‘무게 있는 존재물’ 로 보이십니다.

- ◆ 고로 네 번째,
보여 준 만물의 ‘모양, 색깔, 상태’ 를 잘 봐야 되고,
그 만물을 통해 ‘깨닫게 해 주는 것’ 에 주시해야 됩니다.

- ◆ 한동안 하나님은 섭리사 성전을 살 때마다

<귀뚜라미>를 보여 주셨습니다.

한번은 늦가을에

<몸길이가 길고 색이 붉은 메뚜기>를 기적적으로 잡아와서
방에 놓고 기르고 있었습니다.

그러던 어느 날 한 지역에서 ‘성전 보고’가 왔습니다.

그런데 건물이 그 메뚜기같이

<길이>도 길었고 <색>도 붉은색이었습니다.

결국 기도하고 하나님이 사라고 하여, 그 건물을 샀습니다.

◆ 다섯 번째, <만물 계시>를 주실 때는

- 그 사람이 처한 위치에 있는 만물을 보이시고,
- 없으면 기적적으로 날아오게 하든지,
- 사람을 통해 역사하여 보여 주십니다.
- <생시에 비유로 보여 줄 만물>이 없으면,
 <꿈>에 만물을 보이며 비유하여 계시하십니다.

◆ 특히 하나님이 ‘꿈’으로 계시를 주실 때

<거기에 합당한 존재물>로 합당하고 온전하게 보여 주시는데,
받는 자가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풀지를 못합니다.

왜냐하면 <현실>에서 ‘외적’으로 봐서는 그렇지 않은데,
<꿈>에는 ‘영적’으로 보이니 달리 보이기 때문입니다.

고로 관심을 갖고 기도해야 됩니다. 그러면 확실합니다!

◆ <만물>은 참 다양합니다.

<같은 종류의 만물>이라도 ‘그 생김새와 모양과 형상’은
개성대로 다 다릅니다.

하나님은 <실체 목적에 해당되는 가장 합당한 만물>을 보이며
깨닫게 해 주십니다.

- ◆ 고로 여섯 번째, <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>에 대하여,
<모든 생물>에 대하여, <사람>에 대하여 ‘지식과 지혜’가 풍부해야
하나님이 보여 주셔도 ‘지식과 지혜’로 오묘하고 신비하게 풀고,
깨달음을 받고, 설명을 해 줘도 이해를 잘합니다.

- ◆ <만물 계시>를 모르면,
하나님이 ‘만물과 사람’을 비유로 보이면서 깨우쳐 줘도 모르고,
‘내 의지로 그렇게 생각하나?’ 하고 맙니다.

고로 <만물 계시>도 학문 배우듯, 그림 그리는 것을 배우듯,
각종 운동을 배우듯, 배워야!! 알게 됩니다.

하나님은 <만물 계시를 배워서 아는 자>에게
<만물>을 보이며 ‘비유’해서 계시하시고 깨우쳐 주십니다.

<비유로 보여 준 만물>을 <실체>와 연관시키고
하나하나 자세히 물어보면 깨우쳐 주십니다.

<하나님과 성령님이 주신 계시>이면,
그 계시가 ‘실체’와 연결되어 ‘사실’이 됩니다!

- ◎ 모두 <하늘 언어, 만물 계시>에 대해 배우고,
늘 하나님과 성령님과 대화하며
<만물을 통해 깨닫게 하시는 것>을 깨닫고 행하여 얻고,

**<만물을 통해 보여 주신 표적>을 알고 행하여
그로 인해 얻고 증거하기 바랍니다!**